# “자장 스님 화엄정신 잇는 법석”

## 통도사 화엄산림 입재, 방장 성파 스님 법문



영축총림 통도사가 전국 최대 규모 화엄산림법회의 시작을 알렸다. 12월 7일 시작된 화엄산림을 통해 통도사는 한 달간 화엄 세상으로 변모한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12월 7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법석에는 1만여 대중이 참여해 발디딜 틈도 없이 설법전과 템플스테이관 등 크고 작은 전각이 가득 찼다. 입재법문에서 방장 성파 스님은 통도사와 화엄경의 특별한 인연을 설명했다.〈사진〉

성파 스님에 따르면 자장 스님은 당나라에 공부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가르치러 갔으며, 당 태종은 자장 스님이 방문했을 때 국빈으로 맞았다. 또 황실 귀족과 지식인들은 자장 스님의 화엄경 법문을 청해 들었다.

성파 스님은 “오늘날 우리가 통도사에서 화엄산림법회를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장 스님의 화엄정신을 잇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8회를 맞은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뛰어난 강백을 법사로 초청해 법회를 열고, 법회 기간 동안 화엄경 전체를 살펴 볼 수 있어 매년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입재일인 이날 오후에는 국내 최초로 화엄경 해설집을 완간한 무비 스님이 법문했다.

통도사=하성미 기자

# 17교구 금산사 송년한마당 대법회

## 전북불교신도회, 발전기금 1500만원 기탁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가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도약을 다짐하는 송년대법회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금산사(주지 성우)는 12월 9일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3층 큰법당에서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초청 송년대법회를 봉행했다. 전북불교신도회 주관으로 열린 법회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도법 스님, 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각 신행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성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계획한 불사와 내년도 사업계획이 마무리됐다. 새해에는 어린이 청소년 등 젊은 불자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법어에서 “최근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중도적이고 화쟁적인 태도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불교를 관념과 지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중도와 연기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실천해나가는 불자가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은 금산사에 교구발전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가족 포교 지속적 전략 필요”

## 혜원정사 제2회 시민포럼

가족포교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포교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12월 9일 경내 교육관 2층에서 제2회 혜원시민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1부서는 동국대 박경준 교수가 ‘초기불교에서 본 가족’을,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가족의 대승불교적 해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2부서는 중앙승가대 박수호 교수가 ‘동시대 가족의 얼굴’, 백도수 능인대학원대 교수는 ‘가족 포교의 눈길과 발길’을 주제로 발제했다.

백도수 교수는 “출가자와 불자가 감소하는 원인은 가족 포교를 소홀히 한 한국 불자들의 문제도 크다”며 “여러 다양한 불교 활동을 통해 친밀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허 스님은 “가족의 종교가 같을 때 나아가는 생각과 방향이 같아진다”며 “어릴 때부터 사찰을 찾고, 스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자연스런 포교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봉사는 포교”… 추위 녹이는 자비행

## 부산불교교육대학 포교봉사단, ‘실천 신행’ 귀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교육대학 포교봉사단의 무료급식 현장. 포교봉사단은 불교대학에서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봉사와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교가 봉사, 봉사가 곧 포교’란 기치아래 불교 가르침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는 재가 신행단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봉사’와 ‘포교’를 화두로 삼은 부산불교교육대학 포교봉사단이다.

12월 8일 부산시청 앞 등대광장에 어르신들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노숙자들과 차상위계층 및 독거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 따뜻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친목의 장이 된 무료급식소를 찾기 위해서다. 이곳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포교봉사단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찾고 있다.

숟가락과 젓가락에 살얼음이 생길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포교봉사단은 어깨를 펴고 먼저 큰 목소리로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후 대중은 그릇에 밥과 반찬을 신속하게 담아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매주 평균 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를 찾고 있다. 어르신들은 자리에 편히 앉아 식사를 하며 움츠려 있던 몸을 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포교봉사단은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는 어르신들에게 방한 양말과 간식을 전달하고 손을 잡으며 따뜻한 겨울을 발원했다.

포교봉사단은 2009년에 창단해 매월 둘째 주에는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덕천 주공아파트 경로당서 어르신을 위한 국수 나눔 봉사, 신애재활원 · 천마재활원 등 여러 봉사현장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사단법인 부산밥퍼나눔공동체가 주관하는 부산시청 앞 무료급식에는 4년 전부터 참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봉사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포교봉사단의 든든한 지원이 특별하고 감사하단 인사말도 전했다.

**무료급식 및 봉사활동 10년**
**불교문화 통한 포교활동도**
**130여 회원 오직 불교 위해**
**“봉사 · 포교는 자신 위한 것”**

손규호 밥퍼나눔공동체 상임이사는 “포교봉사단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봉사를 이어주고 있어 무엇보다 든든하고 후원도 아끼지 않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장준동 부산불교교육대학 부학장은 “포교봉사단이 찾아오는 이 무료급식 현장은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연합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손길이 많이 줄어 안타깝다.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포교봉사단이 자랑스럽고 봉사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으로 성장의 밑거름이다. 더 많은 봉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교봉사단은 포교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매월 한 번 전법을 위한 불교문화여행을 실시하고 삼사를 순례한다. 평균 120여 명이 동참하며 이 가운데 비불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불교문화를 통한 쉬운 언어로 비불자에게 불교를 전하는 포교 현장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김광호 포교봉사단장은 “매달 첫 주에 불자가 아닌 분들을 모시고 삼사 순례를 가고 있으며 아름다운 사찰 문화를 소개하고 불교를 전하고 있다”며 “여행 후에는 불교대학에 입학하도록 권하고 지속적인 포교가 되도록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교와 봉사에 함께 동참해주는 모든 단원들과 팀장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봉사와 포교를 수행으로 삼아 정진하는 신행단체를 위해 포교봉사단이 조직됐다”며 “자신이 스스로 관세음보살로 화현하는 자리이자 살아 있는 배움을 얻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 칸타타로 풀어본 전법의 역사

## 홍법사 개산 15주년 기념
## “앞으로도 전법에 매진을”



홍법사는 12월 9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홍법 개산 15주년 기념음악회 ‘홍법 칸타타’를 개최했다.

홍법사 15년 역사를 노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과거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에도 변치 않을 전법 의지를 약속하는 자리로 거듭났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12월 9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홍법 개산 15주년 기념음악회 ‘홍법 칸타타’를 개최했다.

첫 무대에서는 홍법사 대중 스님들과 동림 소속 어린이들이 나와 도량을 깨우는 도량석으로 무대를 밝혔다. 이어 홍법연합합창단이 ‘밀려드는 빛’과 ‘법으로 하늘 열리고’란 장엄한 곡으로 시작을 설명했고, 성장과 수행 등 각 주제를 담은 곡으로 칸타타(연속적인 서술 설명을 담은 교성곡)의 특성을 멋지게 연출해 박수를 받았다.

음악 무대는 칸타타 주제곡 외에도 아이들의 동요 무대와 홍법사 동림중 · 고교 학생 및 청년들의 공연이 이어져 활기를 더했으며,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와 정신혜 무용단의 연화무도 함께했다. 공연 마지막에는 모든 대중이 함께 손을 잡고 ‘보현행원’을 부르며 회향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무대 마지막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심산 스님은 “하도명화 보살의 고결한 원력으로 시작한 홍법사다.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한 그날까지 더욱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홍법사는 2002년 동지에 첫 법회를 봉행 후 동자승 단기 출가, 마을상좌 수계식, 제1차 걸망 메고 떠나는 홍법사 108산사 순례 등을 개최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교를 시작했다. 특히 문화교실을 열어 불자가 아닌 사람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수행을 함께 제시해 성장을 도모했다. 2009년 대광명전 낙성법회 후 2010년 10월, 7주년에는 달라이라마가 보낸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국내 최대 좌불상 아미타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그 외 몽골 및 대만 불교와 교류하며 해외 포교에도 앞장섰다.

한편, 음악회에는 주지 심산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진광 정사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 기 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